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조대왕의 왕 노릇



정 옥 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선왕조의 22대 왕 정조대왕은 조선의 27명의 임금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왕이다. 전기의 세종대왕, 후기의 정조대왕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는 어느 사대부 못지않은 방대한 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를 남겼다. 다른 임금들도 시문이나 글씨 등 축적을 남겼지만 이렇게 방대한 단독문집을 남긴 이는 정조대왕뿐이다. 또한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만들었듯이 정조대왕은 규장각을 만들었다.

둘 다 인재양성과 문화정치를 위한 선크랭크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같다. 세종대왕이 형님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르는 일이 순탄치 못했는데, 정조대왕 역시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험난했다.

정조대왕은 11세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당했다. 그는 아버지의 구명을 위하여 대신들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아비를 살려 달라”고 울부짖으며 호소했지만 결국 그의 아버지는 비명에 갔다. 이 사건은 정조대왕 일생일대의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 이후 그의 생애는 이 사건의 극복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우선 그는 군사(君師)가 되기 위한 고된 훈련에 들어갔다. 조선왕조는 왕들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왕이 되어서도 정사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조강(아침), 주강(낮), 석강(저녁) 등 세 번이나 경연을 하였으니 왕들의 하루는 참으로 고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 결과 18세기에 이르면 숙종, 영조 등 임금이면서 스승을 자처하는 군사들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17세기 세도(世道)를 담당하였던 산림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산림은 17세기 봉당정치의 영수로서 학계와 정계를 아울러 통섭하는 스승 같은 존재였다. 18세기 탕평정치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 학계와 정계를 아우르는 산림의 역할

까지 한 군사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할아버지들을 계승하여 군사가 되어야 할 운명이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이런 사망에 충실하지 못하여 목숨을 잃은 사건까지 겪었기에 그의 분발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신하들을 능가하는 학자가 되기 위하여 밤새도록 공부에 열중하고,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린 다음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암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1776년 25세에 왕이 된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추모의 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요절한 큰아버지 진종(추존)을 계승하는 위차(位次)：왕위 계승의 차례)로서 세손으로 왕위에 올랐다.

왕위 계승에서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사라졌고, 그에게 사도세자는 사친(私親)에 불과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할아버지 영조의 처분은 천리(天理)의 문제이고, 자신이 애통해 하는 것은 인정의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할아버지의 입장을 의리로, 자신의 입장을 인정으로 정리함으로써 삼지되는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규장각을 설치하

여 문화정치의 산실로 삼았다. 기존의 굳어진 관료제제로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다.

그곳에서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인재를 양성하면서 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연을 주도하여 밤늦도록 신하들과 토론하고 새로운 시대사상으로 부상하던 북학사상도 수용하여 조선왕조의 개혁과 변화를 유도하였다.

그렇게 정사에 몰두한 지 20년이 경과한 1796년 45세의 정조대왕은 측근의 신하 김조순에게 “나는 왕 노릇 하기를 즐기지 않는다. … 나는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하루가 지나면 마음 속에 스스로 말하기를 ‘오늘 하루가 지났구나!’ 하고 이틀이 지나면 역시 그렇게 여기며 하루 이를 살얼음 밟듯이 20여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다.

최고 통치자의 자리는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고달픈 자리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연사다. 학자군주 정조대왕이 숙종, 영조에 이어 군사가 되어 탕평정치를 계승 성공시킨 비결이 이 한마디 말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 아닐지 싶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 說

대불산단 조선업체 경영난 타개책 급하다

대불산단 내 조선부품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산단 내 부품업체들이 재산을 압류 당하거나 인력 유출에 시달리며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수주 물량은 전년보다 45.7%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주액과 수주 잔량도 각각 37.7%, 26.3%나 줄었다.

이에 따른 지역 조선업체의 타격도 크다. 연령군 6대의 배를 제조하던 중견업체 두지에서는 최근 2년간 자체 수주가 단 1건도 없었다. 올 6월부터는 컨테이너선 3척을 제작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 일감은 아예 없다. 대형업체인 B조선도 올해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업체마다 100~200만 원의 4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제

산 압류를 당하고, 기술인력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따르면 대불산단 내 40여 업체가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4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되면 압류에 들어가는데 대표자가 연락되지 않는 곳이 태반이라고 한다.

보험료뿐만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달 말부터 세무서 압류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조선협력업체협의회가 압류 및 보험료 유예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선주사 배 발주가 도래하는 6월까지 세금 납부와 압류를 유예해 주면 회사 정상화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관계 당국은 이들 업체 경영난을 감안, 최소한 6월까지 유예 조치를 해주는 등 솜통을 띄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박근혜 당선의 말처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되고, 지역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꼬막 치패까지 싸늘이 남획 금지시켜야

전국 유일의 지역 수산물인 전남산 꼬막이 남획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다. 더욱이 값은 더 쳐주는 참 꼬막은 구경조차 어렵다고 한다. 중간 채취업자들이 치패까지 싸늘이하고 있는 탓이다.

2009년까지만 해도 주산지인 보성·강진 등지에서는 어촌계 소속 부녀자들이 ‘빨배’를 이용해 얕이 굵은 꼬막만을 골라 채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번식이 이어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간 채취업자가 발매기 식으로 양식장을 사들여 꼬막을 싸늘이하는 바람에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것이다.

업자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기계식 채취기구(일명 칼)를 이용해 15일 간격으로 1차례 가장 큰 성패, 2차로 중간 크기, 3차 어린 치패까지 무더기로 훑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갯벌에 피가 난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라고 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내

꼬막 생산량은 5701t에 달했지만 이듬해 3784t, 2011년 1604t, 지난해에는 528t으로 급속히 줄었다. 자연스러운 꼬막 번식과 생산 유지를 위해서는 성패와 치패를 최소한 10% 정도 남겨줘야 하나 바닥까지 파내는 바람에 종자 번식은 물론 우량종자마저 사라져 꼬막 씨조차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산 자원은 남획이 가속화되면 장기간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10년 전부터 남해안에서 쥐치가 사라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남획 금지와 어획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 단속 규정이 없다는 말 뿐이다. 하지만 이는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일반 어종의 경우 그물코 크기 등 규제가 있는 마당에 꼬막만 없다는 게 설득력이 있는가. 해당 지자체와 전남도는 꼬막 채취시 일정 크기 이하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정부에 법제화를 촉구해야 한다. 꼬막이 없는 식탁을 상상해 보라.

의료칼럼

유방 촬영과 초음파검사 병행해야



김 혜 경
현대병원 외과 유방·갑상선암센터 원장

화창한 봄날 초음파 보느라 어둑어둑하게 조명을 줄여 놓은 진료실에서 유방이 단단해져서 내원한 한 환자를 만났다.

유두 아래쪽에 발생한 유방암. 크기가 꽤 크다. 오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인공수정을 수차례 시도해 어렵게 얻은 아이가 3살이라고 했다. “우리 남편은 아직도 아이를 볼 때면 이게 꿈일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해요.”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앉아서 얼마 전 건강검진을 했고, 유방 촬영상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방촬영상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지만 결과는 치밀유방이었다.

치밀유방은 유방 유선 조직의 밀도가 높고 치밀해 유방촬영상 하얗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견은 정상으로 판정하나 유방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작은 종물은 유방촬영상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상이라 판정해도 치밀유선 또는 치밀유방이라 결과를 받으면, 유방초음파와 검사를 병행해야 더욱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60% 이상이 치밀유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치밀유선으로 유방 초음파와 검사를 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그럼 유방촬영을 하지 않고 유방초음파만 하면 되지않느냐는 것이다. 상피내암이나 암이 발생할 때 종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미세한 석화가 발생하면서 추후에 종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석회는 유방초음파에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방촬영을 시행해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유방촬영과 유방초음파를 함께 시행해야 정확한 검사가 되는 것이다.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암은 주변조직으로 침투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고 움직이는 풍우리가 만져지기보다는 예전보다 유방이 좀 뭉친듯한 증상, 또는 유방의 일부가 좀 단단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치밀유선 조직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도 유방에 단단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뭉친 부분이 계속 안 풀리거나 더 단단해지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도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세심하게 진찰해야 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수유하시는 이들이다. 간혹 젖이 뭉쳤다든가 젖뭉살로 오해해 암세포가 유방 전체로 퍼지고 피부가 빨개져서 “유선염이 치료가 잘 안 돼요”라고 오는 환자들이 간혹 있다. 임신이나 수유중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심한 경우가 많아 보는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안타깝게 한다.

얼마 전 병실에 회진갔다가 아빠 뒤에서 숨어서 수줍게 인사를 하는 머리를 양 갈래로 묶은 귀여운 아이를 보았다.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얻은 정말 예쁜 아이였다. 유방암 3기의 암마를 잘 치료해 3살의 귀여운 아이와 가족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솟았다. “아가야~ 우리 모두 열심히 해보자꾸나. 너랑 엄마랑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고

광주가 사회적 경제를 가장 잘 할 수 있다



문 상 필
광주광역시의원

바람이 분다. 잠시 컷들의 팜방울이나 썬트 지나갈 잔바람이 아니다. 지속될 바람이고 변화의 바람이다. 바람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불어 닥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폭풍처럼 뒤덮을 것이다. 이 바람으로 양극화, 빈부의 차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논리가 세차게 흔들리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 ‘사회적 경제’가 급속히 떠오를 것이다. 가히 훈풍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중세가 신민을 쫓던 암흑의 터널

이었다면 그 터널의 끝은 ‘인간’에게 눈을 돌리던 ‘르네상스’가 있었다. ‘사회적 경제’는 돈만을 쫓던 무한경쟁에서 사람과 사람다운 삶으로 눈을 돌리는 경제의 ‘르네상스’라 할 만하다.

시장경제가 단기적 이윤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자유 경쟁을 통해 이윤 달성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적 생산과 소비를 통해 함께 만드는 시장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형태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모두 공동체적 생산과 거래 등을 통해 단기적 이윤보다 장기적인 이익 확대를 목표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실업자 빈곤이 날로 심화되면서 대안으로 시작한 것이 사회적 경제다. 처음에는 주로 정부 중심의 사업상대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도입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양극화가 10년이 넘도록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소위 효율성을 추구하던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

면서 시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의 대안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올해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토대를 만드는 다양한 시도를 준비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그렇지만 광주의 경우는 사회적 기업 37개, 예비사회적 기업 72개, 마을기업 31개, 협동조합 신형 6개 등의 현황을 보이고 있지만 미비한 수준이다.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부서마다 달리 진행되어 있어서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조례도 구비되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광주는 사회적 경제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공동체 정신이 광주만큼 높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 정신은 대동 정신이고 공동체 정신이다. 이번

대선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듯이 광주 시민만큼 경제 민주화가 되는 세상, 사람의 삶을 먼저 보는 세상,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마음이 모아지는 곳은 없었다. 광주의 공동체 정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는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정신으로, 정치변혁을 이루는 정신으로, 민족의 열원을 풀어가는 통일 정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적 경제를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한 인프라 구축,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통합관리, 정보공유, 교육, 홍보 등 행정적 지원,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경제 전문가, 정치인 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이 필요하다. 광주의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을 해결하고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해결하자.

가 줄어든다고까지 생각할 정도라니 정말 큰 문제였다. 그것도 남녀의 구분 없이 그랬다.

앞으로 학생들의 입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욕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대화중에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쳐 줘야 한다. 남녀 공학이 늘어나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뒤지지 않고 기죽지 않으려고 맞서서 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와 가정에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학실·광주시 북구 양신동

학생들 습관적인 욕설…학교·가정 지도 필요

학생들의 욕설이 정말 심각하다. 이렇다 가는 아이들에 의해 한글이 완전 파괴되고 욕설투성이의 말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청소년기에 갖고 닦여진 말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입에 배어 사용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욕으로 단련된 말이 성인이 되어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우려가 더욱 크다.

그런데 얼마후 버스에 여학생 둘이 타고, 서서 공부하는 학생 옆을 지나다가 실수로

모범생을 가리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크고 심각한 문제이다.

며칠 전에도 버스 안에서 서서 버스 지붕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은 채 책을 보던 여학생을 봤다. 다른 곳도 아닌 차 안에서, 그것도 앉은 상태가 아닌 선 자세로 책을 펼쳐 읽을 정도면 누가 봐도 모범생이라 안 할 수 없는 아이다.

그러나 얼마후 버스에 여학생 둘이 타고, 서서 공부하는 학생 옆을 지나다가 실수로